

## 통역 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용 툴 개발 제안

이 지 민  
(계명대)

### 1. 서론

대학원에서 통역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수업 외 시간에도 파트너와의 스터디 또는 개인 자율학습 등을 통해 통역 연습을 수행하고 있다. 통역이라는 전문 기술은 과목 별로 주 1회 2~3시간이라는 수업 시간에만 의존해서는 온전한 습득이 불가능하고, ‘인지적 작업의 자동화 (automation of cognitive operations)’가 통역 기술 습득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Gile 2009: 159) 수업 시간 중의 통역 연습으로만은 학습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기술의 발달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분야를 막론하고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교실 내에서 오디오, 비디오, 인터넷을 활용한 콘텐츠와, IT 기술을 적용해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 등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고, 교실 밖에서도 여러 가지 자율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언어 교육 분야에서도 교실 안팎에서 읽기,

말하기, 듣기 등을 연습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통역 수업도 학습자들의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교수자들이 멀티미디어를 도입하거나 IT 기술을 적용해 자료를 변형 또는 제작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실 밖으로 나가면 언어 교육과는 달리 개인이 자율적으로 통역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통역 연습용 프로그램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통역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수업 외 통역 자율학습에 할애하고 있음을 고려해 본고에서는 통역 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 연습 툴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분석하고 개인 통역 연습 툴 개발을 위한 요건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생 인터뷰를 통해 개인 통역 자율학습 시 주로 하는 연습의 종류와 개선 희망사항 등을 질문해 통역 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 연습 툴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분야를 파악한 후,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해당 학습 기법의 한계 및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연습 툴의 존재 여부 및 한계를 확인한다. 이후 이를 모두 연계한 개선 필요사항을 바탕으로 개인 통역 연습 툴 개발을 위한 요건을 정의할 것이다.

## 2. 통역 연습 툴 개발의 필요성

### 2.1. 학생 니즈 파악

통역 기술 습득에 있어 인지적 작업의 자동화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통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 중의 통역 연습으로만은 학습량이 충분치 않아 교실 밖에서도 통역 연습을 수행하고 있다.

통역 자율학습량에 관해 최근 시행된 진(Jin)(2013)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업 외에 통역 연습을 파트너와 일주일 평균 7시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은 파트너에게 텍스트를 읽어주고 평가해주는 시간을 감안하면 연습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효율성의 문제, 연습 시간과 공간을 파트너와 정해야 한다는 시간 및 공간적 제약 등의 문제 등이 있다고 토론했다. 이

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연구에서는 한 명이 연설을 읽고 파트너가 통역하는 방식을 벗어나 팟캐스트 상의 연설문을 함께 듣고 교대로 통역하는 방식, 스카이프(Skype)나 클로 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text to speech) 소프트웨어(Dragon Naturally)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음성 변환 프로그램과 같은 일부 소프트웨어는 통역 연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술 도입을 통해 통역 자율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학생들이 통역 연습 보조 IT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신기술에 거부감이 없거나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역 연습은 파트너와의 스터디를 통해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없이 혼자서도 개인적으로도 수행하고 있지만 개별 통역 자율학습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한계와 개선 사항에 대한 기존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혼자서 연습하는 경우 학생들이 겪는 한계나 제약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내 2개 통번역대학원의 한영통번역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기 막바지인 11월 셋째 주에 인터뷰를 실시했다. A교는 1학기생 13명을 대상으로, B교는 통역전공 4학기생 1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개인 인터뷰를 통해 아래와 같은 기본 질문을 묻고 개별 학생의 답변을 고려해 기타 관련 질문을 필요에 따라 물었다.<sup>1)</sup> 답변은 모두 녹음해 전사했다.

- 1) 개인 통역 연습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하는가?
- 2) 그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와 그 방식 사용 시 아쉬운 점은?
- 3) 해당 연습은 언제 하는가?
- 4) 해당 연습 장소는?

1학기생과 4학기생 간 통역 연습 유형에 있어 큰 차이는 없었다. 1학기생과 4학기생 모두 영어 연설문이나 기사를 듣거나 읽기, 세도잉하기, 영어/한국어 텍스트를 그대로 외워서 말해보거나(reciting), 내용을 요약하거나(summarizing),

1) 개인 통역 연습 시간도 물었으나 표현 정리, 단순 영어 듣기와 읽기 등을 통역 연습 시간에 넣어야 할지의 문제 등이 있어 정확한 개인 통역 연습 시간은 도출이 쉽지 않았다.

다르게 말해보는(paraphrasing) 연습,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듣고 순차통역 연습을 하거나 문장구역을 연습한다고 답했다. 단, 4학기생은 1학기생과 달리 TED나 유튜브를 들으면서 동시통역도 연습한다고 대답했다.

동시통역 연습 외에 1학기생과 4학기생이 중점으로 두는 통역 연습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1학기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어/한국어 텍스트를 듣거나 읽은 후 외우는 연습을 통해 기억력을 강화하고 표현을 익히는 작업(이하 ‘메모리 훈련’) 비중이 높았다. 학생들은 텍스트를 일정량 읽고 덮은 후 외운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메모리를 증진하거나 완전히 외우지 못한 표현을 재차 외운다고 설명했다.

1학기생은 파트너와 스터디를 할 때에도 순차통역 연습 전에 메모리 훈련을 먼저 한다고 답했고, 4학기생은 파트너와는 메모리 훈련을 하지 않고 순차통역과 동시통역 연습을 수행한다고 답했다.

1학기생은 메모리 훈련을 파트너와도 한다고 답했는데, 이 경우 서로 텍스트를 보여주거나 읽어주고 상대방이 얼마만큼 (원문과 동일한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외우는지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 키워드나 내용 상기에 도움이 되는 단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학습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시간 낭비가 발생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와 함께 하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아래 <표 1>과 같이 답변했다.

<표 1> 파트너와 메모리 연습 이유

분류	학생 답변
절대연습량 충족	“첫 학기라 메모리의 중요성을 교수님들이 강조를 많이 하셔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해요.
개인 연습 시 발생하는 불편 극복	“표현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얘기해보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서요. 파트너가 해당 표현을 살짝 알려주면 생각이 더 잘 나요. “파트너랑 하면 시간이 배가 걸려서 시간이 조금 아깝긴 하지만 혼자 할 때보단 편해요. 메모리 연습을 혼자 하면 막힐 때 막힌 부분을 찾기가 힘들고 다시 텍스트 전체를 봐야 해서 번거로워요. “기억이 안 날 때 상대방이 키워드로 힌트를 주니까 외우기가 더 편해요.

시간 낭비가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연습하려면 키워드나 내용 상기에 도움이 되는 단어 제공이 여의치 못해 메모리 강화 연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파트너와 함께 연습한다는 답변이었다.

한편, 4학기생은 10명 모두 개인 통역 자율학습 시 명사들의 연설을 주로 유튜브나 TED를 통해 들으며 동시통역이나 순차통역 연습을 수행하거나, 그 대용으로 문장구역을 주로 연습한다고 답했다. 동시통역 대용으로 문장구역을 연습하는 이유는 아래 <표 2>와 같다. (괄호는 필자가 삽입함.)

<표 2> 동시통역 대용으로 문장구역 연습 이유

분류	학생 답변
시간의 효율적 사용 및 평가의 용이성	<p>“해당 연설문이 글로 된 텍스트로 없으면(글로 된 텍스트의 형태가 아니면) 통역을 해도 나중에 얼마나 잘 했는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로만 된 연설문은 제가 제 실력을 평가하려면 해당 연설을 다시 다 듣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제가 통역한 것을 들어야 해요.</p> <p>“글로 된 텍스트는 제가 통역한 것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텍스트를 읽을 수 있으니까 즉각적인 평가가 가능해요.</p> <p>“동영상이나 팟캐스트를 통해 연습한 후에 잘 안 된 부분을 찾으려니 시간이 걸려요. 글로 된 텍스트가 있으면 찾기가 훨씬 쉬워요.</p>
가용 자료의 풍부함	<p>“청각 연설문보다는 시각적 텍스트가 주제나 내용이 더 다양하고 시의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p> <p>“유명한 (청각) 연설은 좋은 연설이라도 음질이 좋지 않거나 통역이 이미 깔려서 녹음이 된 것이 많아요. 정상 기자회견이 특히 그래요.</p>
휴대폰 의존으로 인한 가용 툴의 제약	<p>“집 밖에 있으면 주로 휴대폰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유튜브나 다른 동영상을 들으며 통역하려다보면 녹음이 쉽지 않아요. 제가 통역하는 걸 녹음하려고 녹음 앱으로 나오면(녹음 앱을 켜면) 동영상이 멈추거든요.</p> <p>“텍스트를 출력해서 연습하면 휴대폰으로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기가 편해요.</p>
발화 속도의 조정 가능성	<p>“연설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글로 된 텍스트를 사용해 제 페이스로 하는 것이 더 나아요.</p> <p>“좋은 연설이라도 말이 너무 빠르면 포기하고 스크립트를 보고 연습합니다.</p>

혼자서 동시통역 기술을 연마하려는 목적으로 문장구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시간의 효율적 사용 및 평가의 용이성, 자료의 풍부함, 휴대폰 의존으로 인한 가용 틀의 제약, 발화 속도의 조정 가능성 여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각자료를 듣고 동시통역을 하는 경우, 나중에 자가 평가 시 원어와 통역을 각각 듣고 자신이 무엇을 누락했는지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낭비가 있고, 듣기 자료보다는 읽기 자료가 더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청각 자료의 경우 속도를 실력에 맞게 조정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주로 휴대폰을 사용해 연습하기 때문에 내용을 들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동시에 녹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의 사용은 통역 연습을 하는 장소와도 관련이 있다. 학생들은 집, 스터디룸, 카페, 통학길, 차 안에서 등 매우 다양한 장소와 시간에 통역 연습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공부할 것을 출력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그때 휴대폰에서 검색해서 찾는다고 했다.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휴대폰 등에서도 쉽게 콘텐츠를 구해 읽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 3>은 상기 통역 연습에 관한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통역연습 유형은 연습자의 발화가 발생하는 것만 포함했다.

<표 3> 통역연습 관련 인터뷰 결과

	1학기생	4학기생
통역연습 유형	메모리 훈련 문장구역 순차통역	문장구역 동시통역 순차통역 메모리훈련
연습 이유	메모리 훈련: 기억력 강화 및 표현력 늘리기 문장구역: 통역 능력 강화 순차통역: 실전 연습	문장구역: 통역능력 강화, 동시통역 대응 동시통역: 실전연습 순차통역: 실전연습 메모리 훈련: 기억력 강화 및 표현력 늘리기(1학년 때처럼 자주 하지는 않음)
시간	통학 시간, 자기 전에, 주말	통학 시간, 자기 전에, 스터디 불발시, 주말
장소	스터디룸, 차 안, 집, 카페	스터디룸, 차 안, 집, 카페

학생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수행하는 일부 자율학습의 방식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래는 메모리 훈련 방식에 대한 학생의 의견이다.

“읽은 텍스트를 덮고 외우려 하는데 막히는 부분에서 누가 살짝 키워드라도 알려주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치사가 약한데 전치사 같은 거 짝 가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번거로워서 쉽지가 않아요.

내용을 상기시킬 어휘 등의 보조가 있으면 좋겠다거나 외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 어휘만 가리고 볼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다는 피드백을 제시했다. 파트너가 내용을 상기시키는 어휘 등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와 함께 메모리 훈련을 한다는 학생들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아래는 문장구역을 사용하는 학생의 의견이다.

“동시통역 대신 하기는 하는데 텍스트가 눈앞에 있어 자꾸만 봤던 부분을 다시 보게 되어서 동시통역만큼 메모리에 의존하지 않게 되어요.  
“문장구역을 하면 꼼꼼하게 통역 연습을 하게 되어서 좋기는 한데 자꾸만 내가 적절한 속도로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앱으로 신문 기사나 연설문을 읽을 때 녹음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자꾸 까먹어요. 그러다보니 내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는 대신 연습을 했다는 데에만 의의를 두게 되어요.

전향적 통역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동시통역과는 달리 문장구역은 텍스트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읽는 것이 가능해 동시통역 연습 대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읽는 속도를 자신이 조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속도가 적정 속도를 어느 정도 벗어나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전통적 문장구역 방식의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주로 휴대폰을 활용해 콘텐츠를 찾는 요즘 세대의 특성상 텍스트를 휴대폰에서 보면서 동시에 녹음을 하는 경우 기술적 불편이 있음을 호소했다.

통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습 형태와 이들의 불만 및 희망사항을 살펴보면 주로 메모리 훈련과 동시통역 대용으로서의 문장구역 연습 등에 대해 아쉬움과 한계를 집중적으로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메모리 훈련과 동

시통역 대응으로서의 문장구역 자율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툴 개발의 필요성을 파악했다.

## 2.2. 메모리 훈련과 동시통역 대응으로서의 문장구역 연습의 가치와 한계 및 극복 방안

전통적으로 문장이나 표현외우기는 외국어 말하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권장되어왔고 이러한 모방과 암기는 실제로 외국어 능력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Ding & End 2009; 최정숙 2013: 248 재인용). 통역은 외국어 말하기 능력뿐 아니라 발화된 내용을 기억하는 기억력도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통역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듣거나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해당 표현도 함께 외우는 훈련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이에 따라 텍스트를 듣거나 읽고 해당 내용을 기억해 그대로 암기하거나 요약하는 연습(메모리 훈련)을 하고 있다. 메모리 훈련의 효과를 고려할 때 학생들이 파트너 없이도 효율적으로 메모리 훈련을 할 수 있는 툴이 있다면 학생 통역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장구역은 이미 순차통역이나 동시통역 연습을 위한 교육 방법으로서 통역을 배우는 학생에게 신속하게 통역 스킬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서울외대 통번역대학원,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 계명대 대학원 통번역학과 등 국내 전문 통번역학과 대부분에서 문장구역을 정규 과정으로 편성해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언급한 동시통역 대응으로서의 문장구역 측면에서는 몇 가지 해결할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장구역은 결과물이 구어이고 발화의 신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동시통역의 일종으로 규정하기도 한다(정혜연 2007: 107; Agrifoglio 2004: 44; Dragsted & Hansen 2009: 590). 그러나 문장구역은 시각 텍스트에 의존하고 순차통역과 동시통역은 청각 텍스트에 의존한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한 여러 애로사항의 종류나 정도 차원에서 문장구역과 동시통역 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논의가 있다.

먼저, 문장구역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는 주로 문어 텍스트(written text)로서 단어의 수준이 더 높고 문장 구조가 안긴 절을 포함하는 등 난이도가 구어 텍



스트(spoken text)보다 높다는 것이다(Agrifoglio 2004: 47).

둘째, 문장구역과 동시통역은 수행에 드는 노력의 유형이 다르다. 아래의 노력 모델(effort model)(Gile 2009)에 따르면 동시통역과 문장구역은 필요한 노력의 유형과 경중의 정도가 다르다.

$$\begin{aligned} \text{동시통역 노력} &= \text{듣고 분석하기(L)} + \text{단기기억(M)} + \text{발화(P)} + \text{조율(C)} \\ &\quad (\text{Gile 2009: 167-168}) \\ \text{문장구역 노력} &= \text{읽기(R)} + \text{기억(M)} + \text{발화(P)} + \text{조율(C)} \\ &\quad (\text{Gile 2009: 179-181}) \end{aligned}$$

동시통역의 경우 통역자는 듣고 분석하고 기억한 다음 발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한 편 이러한 노력을 조율하여야 한다. 반면 문장구역은 듣고 분석하는 노력이 읽는 노력으로 바뀐다. 문장구역은 해당 텍스트가 눈앞에 계속 남아있으며, 읽는 속도를 통역자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구역의 기억(M)의 부하가 동시통역의 부하보다 적다(Gile 2009: 180). 그러나 문장구역도 자연스러운 통역을 위해서는 텍스트를 읽는 동시에 언어구조의 차이를 감안해 형식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동시통역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시통역 연습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셋째, 동시통역은 정보 처리 속도를 통역자가 조절하지 못하지만 문장구역은 자유로운 조절이 가능하다. 이는 청각과 시각 자극의 차이로 발생한다. 청각 자극의 경우 청자는 해당 자극에 대한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자극이 제공되는 즉시 처리하는 반면, 시각 자극의 경우, 자신의 시선을 조절해 정보처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Danks & End 1987: 276). 즉 동시통역의 경우 통역사는 화자의 발화 속도에 맞추어 정보 처리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반면, 문장구역의 경우 통역사는 자신의 정보처리 속도에 맞출 수 있다. 문장구역이 동시통역 연습 수단으로서 효과적이라면 속도감과 순발력을 키울 수 있도록 주의하고 유념할 필요가 있다(이유아 2014: 278).

넷째, 동시통역은 정보가 제공되는 즉시 사라지므로 정보 처리 시 아이디어의 이해에 중점을 두는 반면, 문장구역은 해당 정보가 계속 눈앞에 남아있으므로 오히려 간섭 요소로 작용해서 통역 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Brady 1989:

182; Martin 1993: 404; Agrifoglio 2004: 46 재인용).

첫 번째로 언급된 구어 텍스트와 문어 텍스트의 차이는 콘텐츠 선정 시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요즈음은 구어 연설 문도 글로 된 텍스트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구어 텍스트와 문어 텍스트는 취사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통령, 장관 연설 등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시각적 텍스트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TED 연사의 발표 내용은 모두 전사되어 글로 된 텍스트 형태로 존재한다. 학생과의 인터뷰에서도 학생들은 글로 된 텍스트가 있는 구어 연설문을 골라서 통역 연습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향후 통역 연습 툴 개발 시 연습자가 텍스트 자료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다양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연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장구역이 기억 부하가 덜한 것은 통역자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정보 자체를 암기하기보다는 해당 정보의 위치만을 기억하고 있다가 해당 정보를 통역할 차례가 되면 다시 해당 정보가 있는 위치로 되돌아가서 이를 보면서 통역하기 때문이다. 통역자가 이미 읽은 정보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셋째, 정보처리 속도를 통역자의 페이스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문장구역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동시통역 대신 문장구역을 연습한다는 학생들의 답변에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 점은 문장구역의 한계로도 작용한다. 일부 학생이 문장구역의 경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자신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답변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통역의 대응으로서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는 속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해당 정보가 눈앞에 남아서 간섭현상이 발생해 통역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은 문장구역의 단점이면서 장점이기도하다. 오히려 이 점을 이용해 문장구역을 외국어와 통역 교육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도 있다(cf. 이유아 2014; 정다워 2014; 조상은 2011; Weber 1990). 그러나 동시통역과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보면 문장구역에는 해당 정보가 계속 남아서 간섭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은 약점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연습 툴에서는 해당 텍스트가 사라지도록 하면 동시통역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3. 기존 통역 자습 툴

영어 교육의 경우 학원이나 기타 교육기관이 주축이 되어 유아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프로그램을 출시해 영어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sup>2)</sup>,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모바일 앱도 부지기수로 찾아볼 수 있다.<sup>3)</sup>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영어 읽기 및 듣기 자료 제공 뿐 아니라 읽은 내용의 이해도 확인, 외운 단어 확인을 위한 문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통역 연습의 경우 화상통화, 팟캐스트나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 등 기존에 존재하는 IT 기술을 활용해 통역 자율학습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있으나(Jin 2013) 통역 연습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된 툴은 매우 드물다. 가장 큰 이유는 상업적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여 적극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겠으나, 데이터베이스에 콘텐츠를 저장하고 해당 콘텐츠를 가공해 문제를 제시하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법으로는 시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역의 경우 최신 정보를 학습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에 따라 원하는 콘텐츠 주제 및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시의성과 다양성이 핵심인 통역 콘텐츠를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방식을 따라 제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제공되는 컴퓨터기반통역교육(CAIT: Computer-assisted Interpreter Training) 툴은 대표적인 예가 초기의 통역교육 툴인 Interpretations를 발전시킨 Black Box로서 이는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홍콩 내 통역 교육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Sandrelli 2005). 이 프로그램은 교수자가 동시통역이나 문장구역을 위한 자료를 해당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면 그 자료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

- 
- 2) 국내 온라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차일드유, 스타폴, 이퓨처, 잉폴, 통문장영어, 도넛, 워트니영어, 잉글리시크루저, 이스페이스, 리딩타운USA 등이 있으며, 해외에서는 주로 KidBiz3000, TeenBiz3000, Edsphere, Engaging English, Total REader, MyOn, lightSail, razkids.com 등이 있다. 한국의 프로그램은 주로 학원 등 교육 기관에서 수업 후 이와 연계한 자율학습용으로 개발한 것들이 많으며 읽기와 말하기 중심으로 디자인된 반면, 해외 프로그램은 주로 읽기 및 이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구글 앱스토어에서 “영어 공부” 또는 “영어 학습”을 입력하면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수백 개의 영어 학습 관련 앱을 볼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텍스트가 스크롤되어 올라가는 기능이 있어 문장구역 연습도 가능하나 학생들이 스피드를 조절할 수 없으며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메모리 연습에 활용할 수 있는 말 바꾸기(paraphrasing)나 빈칸 메우기(clozing) 기능도 있으나 모두 교수자가 미리 자료를 마련해서 임의로 특정 단어를 지운 후 업로드해야 학습이 가능하다는 약점이 있다. LAN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집이나 카페, 교통수단을 사용하면서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아울러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학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 별 개인 니즈에 맞는 자율학습은 불가능하다.

Black Box 외에는 Smartpen을 통역 교육에 활용한 사례가 있다. Smartpen은 원래 비서들이 속기를 하면서 동시에 상황을 녹화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마이크, 스피커, 적외선 카메라 동기화 장치가 있어서 학습자가 특수 펜을 이용해 특수 종이에 노트레이킹을 하면 당시의 발화 내용과 상황이 동시에 저장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통역 학습자의 노트레이킹 기술을 향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Orlando 2013). 그러나 이는 순차통역 연습용이며 2013년 파일럿 스터디 이후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없어 그 효과와 사용의 용이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 3. 통역 연습용 툴 요구사항

학생들의 통역 자습 방식 조사 결과, 개선 희망사항, 현행 통역 연습의 한계 및 극복 방안 등을 종합해 학생들의 통역 자습을 도울 수 있는 메모리 훈련 툴과 문장구역 연습 툴에 대한 요건을 파악했다.

#### 3.1 메모리 훈련 툴

먼저, 학생들이 통역 연습을 이동 시, 카페나 집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역 연습 툴은 이동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의 앱 방식이거나 노트북에 간단히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율학습 시 학생들이 자신이 미진한 분야에 대해 스스로 자료를 찾거나 스터디 파트너와 정한 주제에 따라 자료를 찾는다는 점을 감안해 개인 별로 원하는 텍스트의 주제나 내용이 다양화될 수 있어야 한다. 최신 정보를 학습하려는 경향이 강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미리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만 자료를 고르게 하는 대신 학생들이 인터넷 상에서 고른 다양한 텍스트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난이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텍스트 편집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겠다.

메모리 훈련 시 학생들이 영어와 한국어 양쪽 언어를 모두 연습한다는 점을 고려해 다중 언어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텍스트를 읽은 후 외울 때 학생들에게 내용을 상기시킬 만한 어휘가 선별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들이 전치사나 관사 등의 기능어를 외우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므로 해당 어휘를 선별적으로 삭제하고 빈칸을 채워 넣으면서 연습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평가를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녹음 내용을 재생할 때 텍스트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편리한 자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4>는 메모리 훈련 툴과 관련한 학생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파악한 기능요건을 정리한 표다.

<표 4> 메모리 훈련 툴 요건

	기존 방식의 한계 및 학생 요구사항	기능요건
이동성	장소 불문하고 연습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디바이스, 컴퓨터 등에서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
텍스트	학습자가 니즈에 따라 자유롭게 선정한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로운 텍스트 업로드, 편집 및 읽기 기능
언어	양 방향 연습이 필요하므로 영어 뿐 아니라 한글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다중 언어 지원 기능
단어 상기	핵심 키워드 등이 나타나 내용 외울 때 힌트로 작용하면 좋겠다	특정 단어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하는 기능

기능어 연습	전치사나 관사 등의 특정 기능어 사용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싶다	특정 어휘의 선별적 삭제 기능
녹음 기능	향후 복습 및 평가를 위해 목소리가 녹음되면 좋겠다	연습 시 자동 녹음 기능
복습 기능	녹음된 내용과 텍스트를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녹음 재생 시 해당 텍스트 조회 기능

위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표 5>와 같이 메모리 훈련 툴의 동작원리를 정의할 수 있다.

<표 5> 메모리 훈련 툴 동작원리

순서	사용자 활동	훈련 툴 동작
1	텍스트 조회	사용자가 원하는 텍스트를 불러온다.
2	텍스트 읽으며 외우기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동안 (시간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시간제한 없이) 모든 문장을 보여준다.
3	외운 후 발화하기	지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또는 사용자가 선택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규칙을 적용해 문장의 일부만을 보여준다.  사용자 지정 규칙: ①문장에서 특정 단어를 삭제한다. ②문장에서 특정 단어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삭제한다. ③문장에서 특정 순서에 부합하는 단어들만 삭제한다. ④문장에서 특정 순서에 부합하는 단어들을 제외한 모든 단어를 삭제한다.
		사용자의 발화 내용을 녹음한다.
3-1	기억이 안 날 경우 전문 참고하기	전문을 다시 보여주고 다시 삭제된 텍스트로 돌아갈 수 있다.
4	연습 완료: 복습 및 평가	녹음한 내용을 재생하고 해당 텍스트를 보여준다.

### 3.2 문장구역 연습 툴

문장구역도 메모리 훈련과 마찬가지로 이동 중, 집, 카페 등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연습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므로 모바일 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한국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양방향 연습이 가능하도록 다국어 지원이 되어야 한다.

문장구역과 동시통역의 가장 큰 차이인 메모리 부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시통역과 마찬가지로 문장구역에서도 읽은 부분은 사라지도록 하면 전진통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텍스트의 시각적 존재로 인한 언어적 간섭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도 읽은 부분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 속도로 단어를 강제로 사라지게 함으로써 화자에 의한 자유로운 속도 조절 요소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속도 조절 가능성은 문장구역의 장점이기도 하므로 절충안이 필요하다. 소리내지 않고 읽는 속도<sup>4)</sup>와 발화 속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개인의 능력에 맞도록 속도를 조절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1분당 사라지는 단어 수(WPM: words per minute)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오디오북 등의 빠르기는 150-160 WPM(Williams 1998: Harvey, Hux & Snell 2013: 40 재인용), 일반 강의 시 교수자나 발표자의 발화 속도는 100-125 WPM 정도다(Wong 2014: 349). 참고로 2009년 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발화 속도는 약 130WPM였다(Gile 2011: 203).

아래 <표 6>은 문장구역 방식의 한계와 학생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문장구역 연습 툴 기능요건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문장구역 연습 툴 요건

	기존 방식의 한계 및 학생 요구사항	기능요건
이동성	장소 불문하고 연습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디바이스, 컴퓨터 등에서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

4) 일반 성인의 평균 읽는 속도는 영어 기준 250-300WPM이다(Harvey, Hux & Snell, 2013: 40).

텍스트	학습자가 니즈에 따라 자유롭게 선정한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로운 텍스트 업로드 및 읽기 기능
언어	양 방향 연습이 필요하므로 영어 뿐 아니라 한글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다중 언어 지원 기능
전진 통역	되돌아가서 읽을 수 없도록 하면 좋겠다	읽은 단어는 자동으로 지워지는 기능
속도 조절	일정한 속도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단어가 지워지는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 내용 난이도와 학습자 수준에 맞게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 가능
녹음 기능	향후 복습 및 평가를 위해 목소리가 녹음되면 좋겠다.	연습 시 자동 녹음 기능
복습 기능	녹음된 내용과 텍스트를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녹음 재생 시 텍스트의 해당 부분 조회 기능: 통역 발화시 학습자가 보고 있던 텍스트 부분이 재생과 함께 나타나서 해당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함.

위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구역 연습 툴의 동작원리를 아래 <표 7>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표 7> 문장구역 연습 툴 동작원리

순서	사용자 활동	훈련 툴 동작
1	텍스트 조회	사용자가 원하는 텍스트를 불러온다.
2	문장구역 속도 결정	사용자 수준에 맞게 단어 삭제 속도를 설정한다. (속도는 다양한 값이 사용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WPM(words per minute)를 사용할 수 있다.)
3	문장구역 연습	사용자가 지정한 속도에 맞추어 단어를 차례대로 삭제한다. 사용자의 발화 내용을 녹음한다.
4	문장구역 연습 완료: 복습 및 평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해당 텍스트를 보여준다.



#### 4. 학습 툴의 확대 적용가능성

해당 학습 툴은 개인 자습 뿐 아니라 수업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메모리 훈련 툴의 경우 수업 시간에 키워드만 남기고 학생들이 들은 내용을 암기하거나 바꾸어 말하도록 할 수도 있다. 텍스트의 특정 번째 단어를 규칙적으로 지운 후 학생들이 빈칸을 채워가며 외우도록 하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적게 느끼면서도 암기력을 증진하고 외운 표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이도를 낮추면 학부생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어를 예로 들면,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운 한국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전치사나 관사 등을 지우고 외우도록 하거나 clozing 시 단어를 띄엄띄엄 띄워서 지운다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덜 어렵게 느끼면서 정확한 영어 구사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음성 인식 기능을 추가해 학생들이 정답을 말하면 지워진 단어가 나타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정답틀이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성과를 더욱 쉽게 평가하고 틀린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복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에도 더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문장구역 연습 툴의 경우 수업 시간에 학생의 수준을 반영한 속도로 단어가 지워지도록 해서 문장구역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집중도도 높아지고 실제 동시통역과 비슷한 부하가 걸리므로 더 활발한 연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텍스트 수준에 따라 적정 발화 속도(WPM)를 권장한다면 학생들은 이를 자신의 통역 능력 향상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문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능(text to speech)이 더 발달한다면 이를 적용해 해당 연습 툴을 문장구역 뿐 아니라 순차 및 동시통역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습 툴은 통역 평가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 진행 속도에 따른 통역 결과의 비교가 용이해지고 텍스트 주제나 난이도 별 적정 통역 연습 속도 파악을 위한 연구의 용이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5. 결론

통역 전문가 양성의 경우 학교 커리큘럼만으로는 그 연습량이 능력 배양에 충분치 않아 그룹이나 개인 차원의 자율학습이 필요하므로 통역 교육기관에서도 자율학습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나, 학생들의 효과적인 자율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통역 연습 툴 개발은 아직도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학생들은 개인 통역 연습을 집, 카페, 학교, 대중교통 등의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학년과 상관없이 듣기, 읽기, 문장구역, 메모리 훈련 등 유사한 연습 방식을 사용하나 저학년은 주로 암기력 증진 및 표현 암기를 중심으로, 통역 전공 고학년은 주로 통역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또는 동시통역 대응으로 문장구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문장이나 표현을 외우거나 내용을 요약하는 메모리 훈련이나 문장구역은 학습 효과가 선행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있기는 하나, 개인 자습의 효율을 높이고 이를 좀 더 체계적인 학습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고 이는 연습 툴의 개발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터뷰를 통한 학생 의견 수집, 선행 연구를 통한 학습 기법의 보완 방안 강구, 기존 학습 툴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 툴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새 학습 툴의 요건을 파악했다. 이러한 학습 툴의 개발 요건을 바탕으로 현재는 컴퓨터공학과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실제 학습 툴을 실험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향후 이 툴이 학생들의 통역 학습 및 수업 활동의 다변화와 효율 및 효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 과제는 해당 요건에 따라 개발된 학습 툴을 실제 연습 및 수업에 적용함에 있어 효용성을 확인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아울러 통번역 학습의 다양한 부분에서 학생 및 교수자의 니즈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반영하여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통역과 번역이 다시금 외국어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통역 연습 및 교육 툴은 통역 교육 뿐 아니라 외국어 교육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통역 교육 연구가 인문학 내 연구 뿐 아니라 학제 간 연구를 통한 실질적 결과물을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이유아 (2014) 「동시통역교육을 위한 도구로서의 문장구역 활용에 관한 고찰」, 『일어일문학』 61: 259-279.
- 임순정 (2014) 「통역 학습자들의 방과 후 자기주도 학습 분석 - 그룹 스터디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5): 181-220.
- 정다위 (2014) 「문장구역의 제 2외국어 학습에서의 활용 - 통번역사와 외국어 학습자의 비교 실험」, 『번역학연구』 12(2): 175-214.
- 정혜연 (2007) 「연상작용을 통한 문장구역-통역교육에의 시사점」, 『통번역학연구』 10(2): 105-126.
- 조상은 (2011) 「ST(Sight Translation) 훈련을 중심으로 한 학부 통역교육 제안」, 『통역과 번역』 13(1): 89-115.
- 최정숙 (2013) 「대화 암기와 DVD 더빙을 이용한 영어 수업 사례 연구」,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8(1): 247-274.
- 홍철영 (2012) 「현직 통역사들의 문장구역 실무 수행 사례분석과 교육적 제언: 개방형 설문지의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4): 235-267.
- Agrioglio, Marjorie (2004) 'Sight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straints and failures', *Interpreting* 6(1): 43-67.
- Danks, Joseph and End, Laurel. (1987) 'Processing strategies for reading and listening', In R. Horowitz & S. S. Jay, (eds) *Comprehending Oral and Written Language*. New York: Academic Press.
- Ding, Yanren (2007) 'Text memorization and imitation: The Practices of successful Chinese learners of English', *System: A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and Applied Linguistics*, 35(2), 271-280. Retrieved from <http://eric.ed.gov/?id=EJ796956>.
- Dragsted, Barbara & Hansen, I. Gorn (2009) 'Explor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hybrids: The case of sight translation,' *Meta* 54(3): 588-604.
- Gile, Daniel (2009) *Basic Concepts and Mode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ile, Daniel (2011) 'Errors, omissions and infelicities in broadcast interpreting:

- Preliminary findings from a case study’, in C. Alvstad, A. Hild, & E. Tiselius, (eds) *Benjamins Translation Library*, 201-218.
- Harvey, Judy, Hux, Karen, & Snell, Jeffrey (2013) ‘Using text-to-speech reading support for an adult With mild aphasia and cognitive impairment’, *Communication Disorders Quarterly* 35(1): 39-43. Retrieved from <http://cdq.sagepub.com/content/35/1/39.full.pdf+html>.
- Jin, Sil-Hee (2013) ‘Constraints and the applicability of ICT in the self-training of conference interpreting students: Focused on constraints related to the spatial, temporal, authentic and reflective aspects of learning’, *통번역학연구* 172(2): 195-222.
- Orlando, Mark (2013) ‘Interpreting training and digital pen technology’, *AICC Webzine* 2013. Retrieved from <http://aiic.net/page/6484/interpreting-training-and-digital-pen-technology/lang/1>.
- Sandrelli, Annalisa (2007) ‘Designing CAIT (Computer-Assisted Interpreter Training) tools: Black box’, in H. Gerzymisch-Arbogast & S. Nauert (Eds.) *Challenges of Multidimensional Translation*. In Proceedings of the Marie Curie Euroconferences Saarbrücken 2-6 May 2005. Retrieved from [http://www.euroconferences.info/proceedings/2005\\_Proceedings/2005\\_Sandrelli\\_Annalisa.pdf](http://www.euroconferences.info/proceedings/2005_Proceedings/2005_Sandrelli_Annalisa.pdf).
- Weber, Wilhelm K. (1990) ‘The importance of sight translation in an interpreter training program’. In D. Bowen & M. Bowen (eds) *Interpreting -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New York: Binghamton, 44-52.
- Wong, Linda (2014) *Essential Study Skills*. Australia & others: Cengage Learning.

[Abstract]

## Suggestions for Interpreting Practice Tool Development

Lee, Jimin  
(Keimyung University)

Interpreting training requires students to practice interpreting not only in class but also outside class. Students practice interpreting outside the classroom in pairs or by themselves and perform a variety of activities that are expected to improve their interpreting skill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interpreting practices the students engage in when they study alone, the constraints they have with the current practices an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self-interpreting-practice support tools designed to overcome the constraints the students are experiencing and to facilitate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ir interpreting practices.

The students interviewed answered that they all engage in memory training(memorizing and reciting/paraphrasing texts), sight translation, consecutive interpreting and, partially, simultaneous interpreting. They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memory training and sight translation practices, based on which the requirements for new self-interpreting-practice tool development were identified. The tools are currently in the phase of prototype development. The next step planned is to complete the prototype development and actually apply the tools and pilot test their usefulness and contribution to students' interpreting practices and identify room for further improvement.

▶ Key Words: interpreting, sight translation, memory training, interpreting tool, IT

이지민

계명대학교 통번역학과 조교수

ke9836@hanmail.net

관심분야: 네티즌 번역, 영상번역, 통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15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17일